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ividual Meaning of and the Institutional Meaning of Housework

호남대학교 생활과학과
조교수 윤 숙 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문 숙 재

Living Science, Honam Univ.
Assistant Professor : Sook-Hyeon Yoon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가사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 |
| II. 인간현상의 의미에
관한 한슨의 두 가지 구분 | IV. '가사노동' 연구에 대한 비판적 해석 |
| |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ouse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rinsic meaning of housework, we have to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meaning' and 'institutional meaning'. The former is related to the concern, intent, habit, need, desire, and motivation of the given individual, while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social value, norm, and convention of human behavior.

The majority of the studies on housework have been made by focusing on individual meaning. As the individual meaning of housework has gradually been emphasized, it has been forgotten that 'housework' itself is a very important part of 'home life', and then the importance of home life has gradually diminished.

Housework is naturally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human history, and housework

* 본 논문은 첫번째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함.

reflect total human wisdom. In other words, it is thought that it is possible to grasp the total meaning of life in housework. Our life can be richer than now by increasing the quantity of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phenomena related to housework.

I.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으로부터 가사노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가사노동 혹은 가정생활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였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가사노동을 임금노동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파악함으로써, 임금노동과는 구별되는 가사노동만의 고유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이다. 즉, 가사노동에 들어 있는 비효율성과 불공정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다거나, 개선책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가사노동의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가사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리 다양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고유한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사노동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가사노동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가사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측면과 개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해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측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두 측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방법론의 문제가 된다. 본 연구

에서는 가사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자인 한슨이 인간 현상(human phenomena)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론(Hanson, 1975)을 원용하고자 한다. 가사노동 역시 하나의 인간 현상이며, 하나의 인간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문화에 관한 한슨의 규정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의미 또한 '의도적 의미'와 '합의적 의미' 중에 어떤 쪽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를 구분하는 개념적 틀로서 한슨의 의도적 의미와 합의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하여 구분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가사노동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로 파악하는 관점 속에 들어 있는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가사노동의 연구 방향에 관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인간 현상의 의미에 관한 한슨(Hanson)의 두 가지 구분: 의도적 의미와 합의적 의미

한슨은 인간 현상에 대해 어떻게 질문을 제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인간 현상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질문'과 '제도적 질문'의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해 내어야 한다고 하였다(Hanson, 1975, p.3). 그에 의하면, 개인적 질문은 사람들이 행위할 때 그 행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기, 의도, 이유를 묻는 것이고, 제도적 질문은 서로 관련을 이루고 있는 관념, 사회 조직의 형식, 행동의 규칙 등을 알기 위한 것이다(Hanson, 1975,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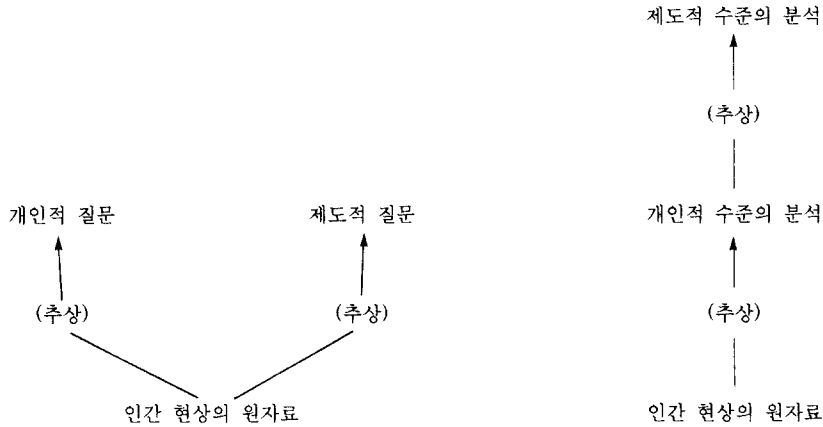
이때 '개인적 질문'과 '제도적 질문'은 '수준'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즉, 제도적 질문이 개인적 질문보다 더 높은 수준, 더 추상적인 수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 현상은 일차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도적 수준의 분석 또는 문화적 분석이 개인 수준의 분석, 또는 심리적 분석에서 추상되는 것으로 본다. 물론, 한슨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제도적 질문과 개인적 질문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Hanson, 1975, pp.4-5).

즉, 개인적 질문과 제도적 질문의 구분은 분석 '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제도적 수준의 분석과 개인적 수준의 분석은 각각 그 동일한 원자료를 보는 그 나름의 특정한 관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개인적 질문을 '거쳐서' 제도적 질문으로 나아가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 1 참조> (Hanson, 1975, p.6).

부르고 있다. 의도적 의미는 사람들에게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질문은 사람이 아닌 문화 현상 그 자체를 문제삼는 만큼, 제도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하등 상관없다. 그 대답은 그 질문에서 제기되는 그것을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따라나오는 '결과', 다시 말하면 그것이 논리적 함의에 의하여 특정 관념, 규범, 풍속, 행동 양식에 연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슨은 제도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드러나는 의미와 관련된다는 뜻에서 그것을 '함의적 의미'라고 부르고 있다(Hanson, 1975, pp.8 -11).

그러나 인간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슨이 사용한 용어를 적용할 때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슨이 인간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의도적 의미'라는 용어는 오직 행위자가



<그림 1> 인간현상에 관한 질문과 그 오류(misconception)

출처 : Hanson, F. A.(1975). *Meaning in culture*. London: RKP, p5, p6.

한슨은 인간 현상에 관한 두 가지 종류의 질문, 즉 개인적 질문과 제도적 질문에서 따라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각각 '의도적 의미'(intentional meaning)와 '함의적 의미'(implicational meaning)라고

실제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의도에만 관련된 의미라는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 의미는 오직 그 행위자에게 직접 물어 보아야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

려나 한손이 문제삼고 있는 의도적 의미는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비록 제 3자가 파악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입장 또는 개인적 측면에서 해석한 의미라면 그것 또한 의도적 의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손이 제도 또는 문화 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합의적 의미'라는 용어는, 한손 자신이 그것은 '결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Hanson, 1975, p.10), 어떤 제도나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따라나오는 논리적 귀결(또는 논리적 함의)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손이 '합의적 의미'라는 용어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 현상에서 당연히 따라나오는 논리적 함의(implication)뿐만 아니라, 인간 현상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것, 즉 '논리적 가정'(presupposition)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손이 인간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의도적 의미'와 '합의적 의미'라는 용어는 좀더 적절한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홍우 교수(1993)가 인간 현상인 '의례'(儀禮)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손의 구분, 즉 '의도적 의미'와 '합의적 의미'를 기초로(pp.158-66) 두 가지 의미를 각각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로 바꾸어 사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행하는 특정 의례에 대하여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고자 할 때, 보고자 하는 측면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통 가정생활에서 행해지던 의례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자기 집안의 재력이나 권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그것은 무의미한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례의 의미는 그 개인이 규정하는 의미로 한정된다. 그러나 의례의 의미를 제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시범하고 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의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금 행동의 제도적 의미를 구현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 행동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의례의 제도적 의미는 개인이 그것을 의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개인의 의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례의 제도적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물론 의례의 제도적 의미를 특정 개인이 의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개인에게 고도의 지적 능력과 문화적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행위의 의미는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인간 행위의 하나인 가사노동의 의미 또한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손의 인간 현상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받아들여, 인간 현상의 상이한 두 측면에 관한 용어는 이홍우 교수(1993)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를 사용하여 가사노동의 두 측면, 또는 두 가지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

1.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

'가사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개인적 질문으로 파악한다면, 가사노동의 의미는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의미, 즉 그 개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또는 비록 제 3자가 해석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의미를 뜻한다.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는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파악되는 의미이며, 따라서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개인과 관련해서 의의를 가진다. 가사노동의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보고로는 설문지 조사 연구에 의하여 파악하려는 의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 조사는 성격상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또는 비록 그것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한 개인의 의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설문지 조사 연구의 결과는 설문지에 응답한 개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을 든다면, 하나는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개인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파악되는 의미라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수단-목적의 관계'로 파악되는 의미라는 점이다. 전자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이나 불만족을 주는가, 또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의미이며, 후자는 가사노동의 의미를 그 활동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의미인 반면에, '제도적 의미'는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이 아닌, 인간 현상으로서의 '가사노동' 그 자체를 문제삼는다. 여기서 제도란 집단 활동의 방식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그 활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의미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요,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한다는 뜻도 아니다(이홍우, 1995, p.238). 제도는 인간의 행위에 논리적으로 들어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 보아서 파악되는 의미가 아니므로 설문지 조사 연구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인간의 신념이나 관념 등에 관하여 깊은 사고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따라나오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 의미이다.

일체의 제도화된 행동에는 그 이면에 모종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은 그 정신을 내면화한다. 가사노동 역시 하나의 제도화된 행동으로서 그것의 이면에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모종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각 개인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그 정신을 내면화하게 된다.

'가사노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가사노동의 의미는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삶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의미이다.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미이다.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가사노동에 들어 있는 논리적 가정과 논리적 함의를 드러냄으로써 파악될 수 있으며, 가사노동에 들어 있는 이러한 가정과 함의는 '인간다운'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가사노동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이것을 좀더 풀어서 말하면, 인간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사노동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요컨대,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개인의 차원에서 가사노동에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며,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류를 존속시켜 왔던 매우 중요한 인간 현상의 하나로서 가사노동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록 개인이 생각하기에 가사노동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가사노동이 인류의 더큰 재앙을 막아주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개인이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노동이 인간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 예컨대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끌어왔던 노동 본연의 의미가 가사노동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일차적인 개인의 욕구충족,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어 내면서 인간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노동 본연의 의미라 하겠으며, 이 같은 본질적인 노동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노동이 바로 가사노동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덕목으로서 인간의 선행이나 봉사를 들고 있다. 이들 덕목들이 특정 시대, 사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 합의를 이룬 지향점이라고 할 때,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인류를 움직여온 더 큰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를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이와 같은 제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한손의 틀에 비추어 본 가사노동의 의미 연구

지금까지 가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사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상, 심리적 관점, 경제적 관점, 그리고 가족사회적 혹은 여성학적 관점¹⁾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리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의 문제를 취급한 논문이나 저서들은 가사노동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아 '가사노동이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부의 가치관에 따라 가사

노동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또는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감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가 등을 연구한 논문들(Maloch, 1963; Oakley, 1974)이 이러한 관점에 속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가사노동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거나, 또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의 문제를 취급한 논문이나 저서들은 '가사노동도 일반 노동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가치는 수치로 환산될 수 있고, 또한 수치로 환산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은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관점은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이익의 비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 및 자원'과 가사노동을 통하여 '산출된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관점은 라이드(Reid, 1934)가 '가정생산'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즉 가사노동을 생산 활동으로 간주한 후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벡커와 그로나우에게 계승되어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Becker, 1976; Gronau, 1973, 1977).

이 관점의 연구로는 가사노동을 생산 활동으로 보는 논문(Beutler & Owen, 1980; Beutler, Owen & Hefferan, 1988),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논문(Gauger, 1973), 그리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의 방법을 제안한 논문(Goldschmidt-Clermont, 1983)들을 들 수 있다.

한편 가족사회적 관점에서는 가사노동의 의미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가사노동의 분담은 가족 구성원의 어떤 권력구조(power structure)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

1) 여기서 각 관점이라는 것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기본 전제에 부합되는 내용의 분류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초점을 맞춘 것을 심리적 관점, 이익과 비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을 경제적 관점, 역할 등과 같은 가족원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을 가족사회적 관점이라고 보았다.

다. 이 관점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원과 권력의 요소로 가사노동의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부 중에서 소득과 같은 자원과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감소한다(디킨, 화이어버, 가정관리연구회 역, 1993, p.255).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의 남녀 불평등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관점의 연구로는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평등주의의 정도를 연관시킨 연구(Doran & Scannell, 1987), 특히 남편의 가사 분담(Rettig & Metzger, 1986)이나 자녀의 가사 분담을 다룬 연구들(Lovett & Abdel- Ghany, 1988)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련된 선행연구²⁾들은 대부분 가사노동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로 규정해 놓은 후, 가사노동의 현재적 상황을 기술한다거나 또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는 처방을 제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 자신이 의식적으로 가사노동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로 한정해 놓고 연구를 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그 속에는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를 받아들일 때에만 의의를 가지는 연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가사노동' 연구에 대한 비판적 해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의 의미에는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라는 두 가지 상이한 측면이 들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상이한 측면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가사노동의 의미는 한 쪽으로 치우쳐 부각되었다. 즉, 현대에 들

어오면서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점점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진 반면에,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부각됨으로써 나타난 한 가지 역기능은 '가사노동' 그 자체가 곧 중요한 '가정생활'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가사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가사노동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로 파악하는 관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관점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개인이 가사노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며, 그 관심은 바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복지로 연결된다. 이 관점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그것에 대한 '태도' 또는 '의식구조'에 주된 관심이 있다. 가사노동에 대하여 각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그가 처한 가정적 상황이나 인생관 또는 삶의 태도 내지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해 왔던 가사노동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일반화하여 평가하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의미나 가치는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언제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노동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나 그것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의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결코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활동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또한 그 속에서 가정 또는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

2) 여기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노동의 효율화 차원에서 다루어진 동선·에너지 연구, 가사노동 시간의 연구,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연구 등도 있으나, 본 절에서는 연구의 주제인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 하는 점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노동'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사소한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바탕을 둔 조사연구를 근거로 하여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사노동의 상황적 조건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에 맞추어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리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가사노동의 의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가사노동 담당자들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가사노동의 의미를 주로 어떤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인식하는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대의 가정생활이 주로 어떤 요인에 지배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관점은 그 의도가 순수하게 가사노동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지표로 환산하여 그것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반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도 일반 사회노동을 담당하는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 또는 '처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관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그 자체의 활동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본질상 무관한 외부의 기준을 끌어들이어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관점은 '가사노동은 그 자체로서 가치롭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보다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치를 드러내려는 관점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학문적 논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노력이 본질적으로 가사노동의 성격

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렇듯 내면화된 가사노동의 의미는 경제적 관점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의미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물질적 가치에 의하여 존재 의의가 판가름나는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사노동에 적용한 결과이다. 자기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간적 가치를 고양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임금노동(즉, 직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성이나 자신이 하는 노동 속에 들어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가사노동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려는 것은, 임금노동에서조차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자본의 논리를 임금노동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가사노동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사노동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파악하려는 이유가 가사노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노력이 가사노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사노동에 모종의 '처방'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을 가족사회적 관점 또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사회적 관점 또는 여성학적 관점은 가사노동의 배분을 가족 내의 권력구조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가사노동의 배분은 가족원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의 양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아마 가사노동을 가장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일 것이다. 가사노동이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가사노동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줄 뿐 하등의 중요한 의미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가사노동은 인간

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은 사회정 이상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가정되어 있다. 그들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만약 가사노동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안겨다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들의 연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하면, 가사노동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더 많이 안겨다 주는 것은 그 당사자를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현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과연 정확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사회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사회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좀더 의미 있는 빛을 던져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관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사노동에 관한 한 바꾸어야 할 것은 현존하는 가사노동의 상황이 아니라(이것은 문화 그 자체의 변동력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당연히 바뀌어 갈 것이다),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내지 인식이다.

가사노동에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의미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의미는 그 본래적 의미가 아닌 수많은 다른 의미들을 부가시킨다고 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본질을 벗어난 노력은 오히려 가사노동의 의미를 점점 더 형해화(形骸化)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가사노동의 의미를 점점 더 왜소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사노동에 관해서 점점 더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지만 가사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더 공허해지지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여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풍부해지고 뿌듯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받았다는 느

낌은 더욱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삭막해지는 느낌만 더해 갈 뿐이다.

인간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인간 '활동'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는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가정은 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에 들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면화하지 못할 때 수많은 인간 활동에 들어 있는 본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올바르게 통합시키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소외되게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한손의 분류에 의거하여 가사노동의 의미를 '개인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의 의미에는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적 의미도 있으며, 이 제도적 의미는 가정생활의 의미 속에 불가분히 있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곧 가정생활 그 자체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된다.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는 인간의 총체적 삶에서의 가정생활의 의미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올바른 삶의 모습과 결부되어 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되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 오는 문화를 내면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며, 이 점에서 하나의 문화로서의 가사노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인간은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정생활의 의미를 내면화하게 되고, 그리하여 가정생활의 의미는 영속되어 간다.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 조건을 인식하고 창조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부여한 의미를 소중히 여긴다. 인간만이 청결함이나 아름다움, 또는 아무런 실용적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형식에 의미 또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정결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한 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 오로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현재의 식사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옷을 입는 것이 오로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와 같이 의복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것에 형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며, 인간이 부여한 이 형식적인 의미가 곧 문화의 정수를 이룬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의미에는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라는 두 측면이 존재하고 이 두 측면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인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 의미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사노동의 이해 방향이다. 이 관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로 환원하여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어떤 가치로 환원하여 파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가사노동을 가정생활의 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과 어떤 논리적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관점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풍부하고 정확하게 드러냄으로써 가정생활과 관련된 인간의 총체적 지혜를 이해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안고 있는 긍정적 측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볼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제도적 의미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둘째,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의 덕목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지 못하였다. 가사노동의 제도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도적 의미가 개인적 의미 혹은 사회적 덕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가사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좀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통 사회로 갈수록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가정에 통합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현대 사회의 임금노동 또한 가사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임금노동을 '임금'이 아니라 '가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우리의 삶에서 임금노동의 위치를 보다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삶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보자는 뜻이다. 임금노동을 가사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그것을 가정생활 전체 속에서 올바르게 고찰할 때 비로소 가사노동의 총체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고찰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우리는 가사노동, 더 나아가 가정생활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디컨, 화이어버(1988). 「가족자원관리」, 가정관리 연구회(역) (1993). 서울:한울아카데미.
- 2) 오클리(1974). 「가사노동의 사회학」, 문숙재(역) (1990). 서울: 신광출판사.
- 3) 이홍우(1993). 전통 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1-193.
- 4) _____ (1995). 「교육의 목적과 난점」. 제5판. 서울: 교육과학사.
- 5) Becker, G.S.(1976).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and Goods over Time.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9-114.
- 6) Beutler, I. F. & A. J. Owen(1980). A Home

-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16-26.
- 7) Beutler, I. F. A. J. Owen. & C. Hefferan(1988). The Boundary Question In Houshold Production: A Systems Model Approa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4), 267-278.
- 8) Doran, E. M. & E. Scannell(1987). Husbands' and wives' household work: Moving towards Equalitarianism.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387-399.
- 9) Gauger, W.(1973). Household Work: Can We Add It to the GNP?. *Journal of Home Economics*, October, 12-15.
- 10) Goldschmidt-Clermont, L.(1983). Output-Related Evaluations of Unpaid Household Work: A Challenge for Time Use Stud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27-132.
- 11) Gronau, R.(1973).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Time: The Value of the Housewives'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63, 634-651.
- 12) _____(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099-1124.
- 13) Hanson, F. A.(1975). *Meaning in culture*. London: RKP.
- 14) Lovett, S. B. & M. Abdel-Ghany(1988). Children' Contributions to Household Activities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99-204.
- 15) Maloch, F.(1963). Characteristics of Most and Least Liked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55(6), 413-416.
- 16) Rettig, K.D., N. M. Metzger(1986). Fathers' Involvement in Household Activit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195-207.